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혼성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순 자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Characteristics of Hybrid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

Soon-Ja Kim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12. 10. 17. 접수; 2012. 11. 23. 수정; 2012. 11. 29. 채택)

Abstract

Post-modern society leads us to accept diversity and variability instead of pursuit of the absolute truth, beauty or classical value systems, thus leading to hybrid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effects of hybrid expressions through which to provide conceptual bases for interpreting expanded meanings of fashion illustrations that express aesthetic concepts of hybrid culture.

Hybrid refers to a condition on which diverse elements are mixed with each other, so any one element can not dominate others. It is often used to create something unique and new by a combination of unprecedented things.

Hybrid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temporal hybrid, spatial hybrid, morphological hybrid and hybrid of different genres. Temporal hybrid from a combination of past and present in fashion illustration includes temporal blending by repetition and juxtaposition. Spatial hybrid shows itself in the form of inter-penetration and interrelationship by means of projection, overlapping, juxtaposition and multiple space. Morphological hybrid expresses itself through combination of heterogenous forms and restructuring of deformed forms. Hybrid of different genres in fashion illustration applies various graphic elements or photos within the space, and represents blending of arts and daily living.

Such hybrid expressions in fashion illustrations reflect the phenomena of diversity and variability of post-modern society. Hybrid expressions in fashion illustrations predict endless possibility of expressing new images through combining various forms or casual elements and can develop toward a new creative technique.

Key Words: Temporal hybrid(시간적 혼성), Spatial hybrid(공간적 혼성), Morphological hybrid(형태적 혼성), Hybrid of different genres(장르적 혼성)

I. 서론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 정보화 사회, 복수 패러다임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로 불릴 만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변해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융합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고 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문화와 우

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하이브리드가 진행되고 있다. 문학, 미술, 디자인과 같은 창조 분야에서도 기존의 일원적인 체계나 경계, 영역의 관습적 구분을 벗어나 타 장르와 혼성되어 새로운 방법과 표현양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복합, 중첩시킴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도 다양한 양식들의 혼재를 통한 다감각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에 나타나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연령이나 인종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각 특성들이 혼성되어 표현되고 있다(김지연, 이경희, 2004).

혼성은 하이브리드, 퓨전, 크로스오버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디자인과 패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혼성에 대한 연구는 건축에서의 혼성적 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강정환, 1996; 김정호, 2001; 신준호, 2003)와 실내 디자인에서의 혼성적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홍승대, 1997), 건축과 실내디자인에서의 혼성적 표현에 대한 연구(박홍, 2001)가 이루어졌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는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접근하였고(박용인, 1999), 현대미술과 디자인에서의 혼성 표현 기법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태하, 2003)가 있다. 패션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패션에서의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경향에 대한 연구(임영자, 한윤숙, 2001)와 퓨전 현상에 대한 연구(최수아, 2003), 장르 간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김자민, 2005; 방기정, 김경희, 2012),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양취경, 김경란, 2005; 방기정, 김경희, 2010)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있다. 혼성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문화는 아니나 이전의 혼성적 경향이 장르 간 혼성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었던 지금쯤은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창조 개념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코드로 등장하였다(김정호, 2001; 이태하, 2005).

패션과 인체를 중심으로 작가의 독창적 조형의식을 표현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혼성의 경향을 볼 수 있다. 미

디어의 발달과 컴퓨터 매체의 일상화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의 반복적 재생과 자유로운 혼성이 가능한 컴퓨터 매체의 특성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하나의 패션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이미지의 요소들을 하나의 화면에 배치하거나 복잡하고 미묘한 스타일이 뒤섞여 표현되고 있어 구체적인 이미지나 명확한 패션 메시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다양한 혼성적 표현기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경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과 기법, 양식의 혼성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각예술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가치를 높이고 다원적 시각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혼성의 개념과 발생배경을 고찰하고 미술사 관련 서적을 통해 현대 미술에서의 혼성 표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된 패션 및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서적 및 작품집 12권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제시된 작품을 대상으로 혼성 표현의 작품을 선정하고 유형별 특성과 효과 및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II. 혼성 표현의 개념과 발생배경

1. 혼성의 개념

혼성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나 사물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다(김자민, 2005) 영어의 하이브리드와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하이브리드의 사전적 정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을 말한다(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8).

생물학적 정의로는 유전 형질이 서로 다른 부모의 교배에 의해 생긴 자손 즉 서로 다른 종, 속이나 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라는 의미이며(홍승대, 1997) 유전학적 개념에서 하이브리드는 우연한 교잡의 결과이며 서로 다른 종들간의 조합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가지지만 단종하는 새로운 종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정환, 1996).

혼성은 영어의 하이브리드 뿐 아니라 크로스 오버(crossover), 퓨전(fusion)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크로스오버는 원래 음악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음악에서의 크로스 오버는 클래식 연주자들과 팝 아티스트들이 함께 음반을 내거나 공연을 하면서 두 영역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거나 팝 음악 내에서 서로 다른 장르가 혼합되는 것이다(조희창, 1993). 패션에서의 크로스 오버는 하이브리드나 퓨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문정, 1995). 퓨전의 원 뜻은 핵의 융합, 융해로 현대문화에서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이종교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문화권간의 상호종종이라는 차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 전통과 현대, 고급 순수예술과 저급 대중예술 등 서로 다른 장르나 재료,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김윤경, 2000).

혼성의 개념은 순수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모든 현상을 단편화된 시각으로 인지하여 복합, 혼합시켜 섞는 것을 기본 개념(방기정, 김경희, 2010)으로 하며 대립과 병존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공존의 전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혼성은 두 개 이상의 요소 즉 두 가지의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짐을 의미하며 결합한 각각의 요소의 기능과 형태는 전체 혹은 일부분이 남아 있어 결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한다(김자민, 2005). 그러나 혼성의 중요한 개념적 특성은 이질적인 결합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형질의 출현을 가져오는 것이며 따라서 혼성된 것에서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혼성은 이질적 요소들을 일관성 있는 전체 속으로 흡수하여 원형의 특성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Kipnis, 1995). 따라서 혼성 표현에서

는 구성된 각각의 요소의 특징이 아닌 합해진 전체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을 준거로 본 연구에서의 혼성의 개념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단편적 요소가 합해져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으로 하였다.

2. 혼성의 출현 배경

혼성적 경향은 현대의 다원적인 시대 상황과 매체의 변화, 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났다.

1) 다원화 경향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다 정보 다 활용’의 공유가 이루어져 각 나라의 문화 요소들이 상호 교류되면서 자기의 문화만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섞임으로써 새로운 흥미를 만들어내며 섞임에 의한 이러한 이질적인 장르의 만남은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인자들이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결합되어 새로운 탈 장르의 다원화된 문화를 생성하게 된다. 모든 문화적 가치가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단일의 가치도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가치는 단편화된다. 따라서 다원주의 현상이 보여주는 특성은 전체보다 부분, 고정보다 변화, 조직보다 개인, 고정된 미학보다 열려진 미학으로 다양하게 변화되고 어느 이즘도 지배력을 가지지 않으며 창작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작가의 자유와 자율에 관한 것으로 위임되고 있다. 또한 절대적인 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고전적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며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윤난지, 1993).

2) 매체의 변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결합된 하이퍼미디어와 같은 매체의 변화는 기본적인 요소인 이미지, 소리, 텍스트들을 여러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지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매체의 변화는 시간, 공간, 속도 개념들도 변화시키고 있어 한정된 공간에 대한 개념이 가상공간이라는 무한대의 공간개념으로 바뀌며 빛의 속도와 같은 빠른 정보의 속도 등의 개념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체들은 복수의 매체에 대한 비순차적인 접근을 허용하며 물리적으로 시작이나 중간, 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오은경, 2008) 다양한 대화채널로 인한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의 역동성과 연속성, 열린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영역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행위 자체와 정보에 대한 관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임영자, 한윤숙, 2001).

3)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원리 theory of relativity>,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의 <불확정성 이론 uncertainty principle>,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 이론 theory of complementarity> 등 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의 논리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같은 사건도 다른 좌표 체계 안에서는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논리로 뉴턴 패러다임의 절대적 시 공간의 개념을 상대적 시 공간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또한 이 원리는 움직인다거나 정지해있다는 것 또는 빠르거나 느다는 것은 상대적 기준 틀에 의한 것이고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사물의 다른 형태라는 사실 등을 밝혀주고 있으며 이 논리에 따르면 절대적인 운동, 시간,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법칙이다. 이 원리는 기존의 결정론적이고 확정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난 것으로 동시에 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사건을 예측할 수도 없고 다만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

나지 않을 가능성의 개념인 확률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원갑, 1991).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빛이 입자 또는 파동 중의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라고 설명함으로써 파동과 미립자의 상호배타적인 측면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다(Shlain, 1989/1995).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사실상 동일한 개념의 다른 면들이라는 의미를 제시하며 따라서 모든 체계는 개방성을 가지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며 변경 가능하고 혼합된다는 원리이다.

Ⅲ. 현대 미술에 나타난 혼성적 표현

20세기 이후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현대 미술에서 혼성적 표현은 20세기 초반의 다다이즘부터 초현실주의, 1960년대의 팝아트, 그 후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과 특성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시대별로 대표할 수 있는 혼성적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다다이즘

다다는 창조적 표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파괴하고 레디메이드와 오브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형예술의 표현영역을 확대시켰으며 다다이즘의 부정정신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연의 발상은 이질적 오브제들의 조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다다의 작품 제작 방법은 창조 또는 변형의 과정이라기보다 현실세계에서 가져온 단편적 오브제들을 병치시키거나 조합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 타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혼성적 경향이 나타난다.

뒤샹(Marcel Duchamp)은 레디메이드를 제작하여 일상생활과 예술과의 거리를 좁혔고 다다

의 포토몽타주는 회화와 사진과의 장르적 혼성을 보여주는데 몽타주라는 말은 필름을 선택하고, 자르고, 잘린 조각들을 조합하는 영화기법과 관련된다. 또한 다다이스트들은 평면적인 타블로에 삼차원적 특성을 부여하는 앳상블라주 기법을 개발하였다. 슈비트츠(Kurt Schwitters)는 메르츠(Merz)라고 이름붙인 독창적인 앳상블라주 기법의 작품을 제작하여 다양한 이질적 오브제들이 우연하게 만나 결합되는 단편들을 표현했는데 메르츠의 개념은 예술적 창조를 위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2.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표출하는데 중점을 두며 기법 면에서는 오브제나 레디메이드, 콜라주, 포토몽타주 등 다양한 표현 양상을 보인다. 다다와 마찬가지로 우연적 결합을 중요시하였고 우연적 상황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초현실적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혼성기법을 사용하는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는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공존하는 작품을 만들었고 달리(Salvador Dali)는 이미지들이 각각의 고유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중 또는 다수의 공간을 한 화면에 표현하였다. 또한 초현실주의 작품에서는 구성 요소들끼리 어울리지 않는 병치에 의해 비합리적 형상을 표현하거나 인체를 사물화하거나 기계화하여 왜곡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며 환상과 꿈의 세계에서는 인간과 동·식물 형상과의 혼성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3. 팝아트

팝아트는 세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을 미술영역과 사회체계 속으로 끌어들었고 화면의 이미지는 구상적이지만 회화적 사고는 추상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으로 구상과 추상의 혼성적 조합을 제시하였다. 표현기법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예술의 기법들인 유화, 조각, 콜라주, 판화 등을 조합하고 사진과 영화, 실크 스크린, 혼

합매체를 접목시켜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등의 혼성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팝아트의 혼성적 표현은 광고 이미지, 복제품, 대량생산품 등의 대중문화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여 고급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평범한 사물들을 일상적인 문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예술적 문맥에 머물도록 하여 장르적 혼성을 보여주었다.

4.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주의는 어떤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하나의 이념이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식이 병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문화이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의 다원화 양상은 매체의 다양화와 양식적 해체의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내용면에서도 주체의 혼합을 지향하였다. 또한 구상과 추상이 자유롭게 공존하였으며 대중문화와도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작가들은 벽, 지하철, 혹은 거리와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미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포스트모던 미술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영역간의 수렴현상이다(정정식, 2003). 즉 작가들은 영역과 장르의 제한을 넘어선 다양한 양식과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작품에 부가하였다. 회화와 조각 간의 경계가 파괴되고 서로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허용되었으며 평면 작품과 입체 작품이 일관된 작품으로 같은 공간에 설치되기도 하고 미술이나 음악 또는 무용, 퍼포먼스 등 공연예술의 영역과도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신지선, 2004).

IV.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 특성과 의미

혼성적 표현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내 디자인의 혼성적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간적 혼성, 지역적 혼성, 장르적 혼성으로 분류하였고(김정호, 2001) 테페이지зм 기법

과 혼성적 표현기법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시간적 혼성, 형태적 혼성, 공간적 혼성, 장르적 혼성, 재료 및 색채적 혼성으로 유형화하였다(이태하, 2005). 패션 관련 연구에서는 임영자와 한윤숙(2001)은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상·하위문화와 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으로 분류하였고, 양취경과 김경란(2005)의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을 표현기법 특성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연구로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들(김정호, 2001; 이태하, 2005)의 분류를 적용하여 시간적 혼성, 공간적 혼성, 형태적 혼성, 장르적 혼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간적 혼성을 지역적 혼성의 개념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는 하나의 공간에서의 이질적 요소들의 혼성 기법으로 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 기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155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시간적 혼성 16 작품, 공간적 혼성 66 작품, 형태적 혼성 35 작품, 장르적 혼성 38 작품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기법의 혼성으로 인해 분류가 애매한 것은 제외하였으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은 개별적인 것으로 수치화하였으나 장르적 혼성은 혼성 영역과 방법이 중요하므로 같은 작가의 같은 기법의 작품은 하나만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 특성

1) 시간적 혼성

시간적 혼성은 현재와 과거의 요소를 하나의 공간에 도입하여 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표현하여 독특한 조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적 혼성의 표현방법은 반복에 의한 시간 혼성과 병치에 의한 시간 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반복에 의한 시간 혼성

반복에 의한 시간 혼성은 시간적 변화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반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위 형태를 2회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윤민희, 2008), 동일한 대상의 확대 축소를 통한 반복적 표현은 관찰자로 하여금 원근감과 공간감을 느끼게 하며 대상의 움직임에 대한 연속성을 느끼도록 한다(이지현, 2009). <그림 1>은 동일 인물의 점진적 확대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 움직임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시선의 이동에 따른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며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공간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한 장의 사진에서는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물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순서를 거쳐 볼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고 관찰자의 복합적인 경험까지 암시하고 있다. <그림 2>는 동일인물을 확대 반복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의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인물의 이동에 따른 변화를 한 화면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크기가 큰,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을 흐리게, 멀리 있는 대상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원근법은 시공간을 자유로 넘나드는 가상공간에서의 신체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낮은 이미지로 독특함을 제시하고 있다.

(2) 병치에 의한 시간 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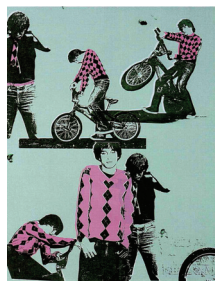
병치에 의한 시간 혼성은 동일대상의 다른 움직임을 한 공간에 병치시키는 방법과 다른 시간성의 형상들을 한 화면에 병치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시간성을 하나의 공간에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병치(juxtaposition)는 ‘beside’, ‘near’라는 의미의 ‘jxsta’와 위치라는 ‘position’이 합쳐져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단어나 사물을 함께 결합하거나 나란히 위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김태은, 2001). <그림 3>은 동일대상의 다른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면서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연상하고 느끼게 하며 <그림 4>는 동일 대상의 움직임에 따른 공간에서의 위치와 동작을 시선의



<그림 1>
Laura Quick,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Victionary (2007b),
p.212.)



<그림 2>
J. Priky, 2005
(출처: Dawber, M. (2007),
p.106.)



<그림 3>
Gibb Kate, 2000
(출처: Borrelli, L (2004),
p.68.)



<그림 4>
Toby Neilan,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Victionary
(2007b), p.96.)

움직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움직이는 초점에 따라 관찰자를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적 혼성에 의한 표현은 대상의 움직임에 지각하게 하여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복잡적 시간의 공존과 시간의 흐름을 한 화면에 나타내는 것은 불명료하고 불확정적인 시간이미지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부터의 이탈과 새로운 상태로의 복귀를 수반한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미래, 현재, 과거와 같은 이질성의 동시 표현이 가능한 것은 현대 과학 패러다임의 상대성 이론과 관계되며 대립적 개별자들이 동시에 존재함은 상보성의 원리라도 연결되어 있다(이태하, 2005).

2) 공간적 혼성

공간적 혼성은 둘 이상의 이질적인 공간을 조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공간은 조합된 각각의 공간과 전혀 다른 의미를 창출하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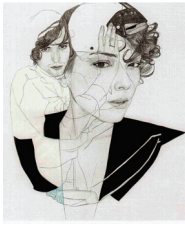
최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공간 구성은 하나의 표현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 개의 표현 방법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기에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성유정, 유영선, 2002). 독특한 공간 창출을 위한 공간적 혼성은 투영에 의한 기법과 중첩에 의한 기법, 병치에 의한 기법, 이중영상 기법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1) 투영에 의한 공간 혼성

투영에 의한 공간 혼성은 다수의 대상에 투명감을 부여해 이미지들을 서로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만드는 방법이다. 투영은 대상을 가로지르는 가시적 공간 전달 체계로(김호연, 2001) 투영에 의한 공간 혼성은 겹쳐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전체로 만들어지며 동시 지각에 따른 이미지 인식을 유도하여 통합적 인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림 5>는 두 대상간의 겹치는 부분을 투명하게 표현하여 각각의 대상이 속한 공간을 혼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형태, 공간, 오브제 등이 서로 투명하게 중첩되면서 생기는 시각적 현상을 상호 관입이라 하며 (나우철, 2008) 상호 관입으로 인해 공간에는 연속성이 부여되고 여러 형태들의 겹침은 공간의 깊이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에서처럼 면이나 형상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공유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두 개의 공간이 서로 만나 한 공간으로 합쳐지기도 하며 합쳐진 공간의 일부가 될 수도 독립된 공간이 될 수도 있어 초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무한 공간을 만들며 공간에 다양한 변화를 창출한다.

투명성은 있음과 없음이 등가로 되는 것이다. 투영에 의한 공간 혼성에서는 그림의 내부 안쪽의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또 다른 층 위에 묘사된 이미지들과 사건들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투명한 형태는 각각의 형태를 가까운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모호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다의적인 공간(equivocal



<그림 5>
Chalse Anastase,
2002 (출처: Borrelli,
L. (2004), p.14.)



<그림 6>
Ho Calvin,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Victinary (2007b),
p.229.)



<그림 7>
Elisabeth Arkhipoff,
2002 (출처: Borrelli,
L. (2004), p.27.)



<그림 8>
Venhoeven, 2005
(출처: Borrelli, L.
(2004), p.169.)



<그림 9>
Made,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Victinary (2007a),
p.141.)



<그림 10>
Container, 2004
(출처: Klatan, B. et
al (2005), p.9.)

space)이 된다(나우철, 2008). 이러한 것은 공간에 대해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사실과 엇갈리게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흥미와 신선함을 자아낸다.

(2) 중첩에 의한 공간 혼성

중첩은 하나의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 위에 있는 다른 단위를 가릴 때 생기는 효과로 중첩에 의한 공간 혼성은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각각의 대상이 속한 이질적 공간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6>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마치 입체감이 없는 듯 제멋대로 중첩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미지들은 각 대상이 속한 이질적 공간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공간을 혼성하고 있다. 중첩은 깊이의 착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각각의 형은 다른 것 위에 포개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깊이감이 생긴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성적 구성은 대비와 부조화 같은 극적 효과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현실적 관념에서 결합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이미지가 한 화면에 동시에 결합하게 됨으로써 무질서가 공존하며 시각적 혼란 속에서 관찰자에게 새로운 것을 인식시킨다. 또한 중첩된 공간에서는 보여 지는 것과 보여 지지 않는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보는 대상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고(김정은, 1999) 다의적인 성격을 띠며 의미의 혼란과 모호성을 갖게 된다.

(3) 병치에 의한 공간 혼성

병치에 의한 공간 혼성은 이질적 이미지들을

단편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질적인 부조화를 강조하고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의도적 상호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그림 7>에서는 일관성 없이 사진 콜라주된 이미지들이 무질서하게 혼성되어 있으며 비일관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입자들의 엉뚱한 배합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구성을 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관객들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건너뛰듯이 이동하여 대상을 지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선의 흐름은 이미지를 시각적이 아닌 촉각적으로 지각하게 만든다. 또한 연관성이 부족한 사물들을 병치시키는 것은 각각의 물체의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시각적 자극을 유도하고 상상의 무질서를 통한 신비감과 초현실적 환상을 연출하고 있다. 병치에 의한 공간 혼성은 대상들을 하나의 평면에 제시하는 역원근법으로 화면의 구도가 사라지고 초점이 분산된다(박선희, 유영선, 2003). 즉, 고정된 시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시야의 사물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한 작품에 구성하는 것이며 화면의 시점을 이동시켜 한 화면 속에 동시에 여러 초점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비선형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주체의 의미가 해체되어 의미 해석을 불확실하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4) 이중영상

이중 영상은 하나의 공간에서 전체를 지각한 후 또 다른 장면이 보여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물로 이중 내지는 다중의 효과를 만드는 방법

이다.

<그림 8>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체 이미지를 제시하고 인체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어 투영에 의한 이중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그림 9>에서는 서 있는 인체와 인체의 머리를 덮고 있는 불꽃 이미지를 중첩시키고 그 안에 다양한 이미지를 겹치게 보여주는 이중 또는 다중 영상으로 상상 속의 공간을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그림 10>에서는 서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을 한 화면 안에 병치하여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의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의 대상이 속한 공간을 혼성하는 기법이며 혼합과 대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확장된 공간 개념에 의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화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있는 상황이 혼성되어 보여 지는 이러한 구성은 주제와 배경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공간관계가 애매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며 주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다. 특히 미디어의 변화는 예술에서의 시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공간성 표현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시각적 재현으로 보는 사람에게 상상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간접적 체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공간적 혼성은 원경과 근경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어진 비원근법적 표현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야 내의 사물을 통한 결과를 한 화면에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던 통일적 질서가 사라지며 주제와 배경의 구분이 사라져 주체는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공간 혼성으로 형성된 다중시점의 공간은 원근법적 공간에서 모호해진 카오스 공간으로 나아간다. 카오스 공간에서는 기표와 기의가 흩어지는 산종이 일어나는데 산종된 텍스트들은 무한한 대상과 치환시켜 의미를 재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공간 표현은 다양한 성격을 갖는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표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공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다의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연성, 불확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에서는 전달하려는 명확한 패션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의 불확정성이다.

3) 형태적 혼성

형태적 혼성이란 이질적인 형태 구성 요소들의 우연적 결합에 의해 독특한 새로운 혼성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형태적 혼성은 이질적 형상의 결합, 비정형적 형태의 재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이질적 형상의 결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이질적 형상의 결합은 인체와 동식물, 인체와 사물의 혼성으로 나타나며 작가의 의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선택되고 새롭게 조합하여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11>은 얼굴의 형태를 동물로 변형시켜 인간과 동물의 혼성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인간도 동물도 아닌 현실과 가상 이미지를 섞어서 만들어진 혼성체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인체는 자연과 융합하기도 하고 물체와 합체하기도 하며 동물의 형태로 변신하기도 하고 기계와 결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성 신체는 단순히 다른 형태를 가진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그 틀을 벗어난 것으로 전통적 인간 개념을 벗어난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존재이며 질서체계를 벗어난 비정상적 돌연변이이다(배명지, 2009). <그림 12>에서는 인체의 형상과 사물의 형상을 합하여 비현실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질적 결합은 이미지 개체 간의 대립관계를 형성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 형태의 이미지 효과와 대비의 직접적 표현을 통해 의미의 혼란을 주고 시각적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

이질적 형상의 결합을 통한 혼성적 표현은 대립적인 차이점들 간의 모순과 갈등에 의해 터무니없는 기이함을 유발하여 시각적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현실감이 부족한 형상은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경험적 이미지를 뒤엎고 기억에 익숙한 사물의 원래 위치와 관계에서 분리 이동시켜 낯설게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그림 11> Kayano Wada. 제작 년도 표시 없음 (출처: Delicatessen (2005) p.96.)



<그림 12> Nazario Graziano, 2006 (출처: Delicatessen(2007), p.119.)



<그림 13> Esdar Maren, 2004 (출처: Victinary (2007a). p.239.)



<그림 14> Lucia Blanco, 2006 (출처: Hildago, M. R. (2007), p.134.)

유희와 재미를 준다.

(2) 비정형적 형태의 재구성

비정형은 정형을 부정하는 추상적인 자유 조형 형태로 비구조적이며 형태의 모호성을 갖는다. 비정형적 형태 결합에 의한 혼성적 표현은 비구조적인 단편적 형태를 재구성하여 새롭게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림 13>은 다양한 곳에서 가져 온 불완전한 이미지 단편들을 하나의 인체에 결합시켜 새로운 인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배합보다는 파편화된 구성방법을 사용하며 앞뒤가 맞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패치워크처럼 보인다. <그림 14>는 의복의 재질을 나무로 변환시키고 맥락과 무관한 이질적 재료의 비구조적 단편들로 결합된 혼성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질적 재료는 형태의 비정형적 특성과 모호성을 부각시킨다. 이질적인 형상에 의해 서로간의 단절과 대립에 의한 불완전함을 새롭게 도출하고 있으며 비정형의 형태들의 조합은 비틀리고 파열된 형태를 만들어 왜곡된 형태로서의 인체를 재창조한다. 이것은 인체 고유의 형태를 기정사실로 생각하기보다 재창조의 대상으로 보고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형상들과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비하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하며 균형과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동감과 변화를 준다. 또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엮힌 복잡한 상태는 시선을 '방종한 추적'으로 이끌어 그 자체로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미로 해석된다(Shiner, 2003/2007).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형태적 혼성은

형태의 우연적인 발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현실적인 이미지는 상상적인 결합에서 오는 새로운 세계의 표현이다. 형태 혼성은 외형적으로는 무질서, 부조화, 불연속적인 형태로 복잡성을 표출하며 비계획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일체성과 통일성을 거부한다. 무작위적 구조는 구성 요소간의 의외의 구성으로 있어야 하는 곳에 대한 기대를 전복시킴으로써 불확정적인 미를 제시하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확대함으로 시각적 집중효과와 의미의 연상 작용을 자극함으로 모호성을 유발시킨다. 왜곡된 형상은 전통적으로 터부시되어 왔던 미성숙한 감각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미적 관념을 전복한 파괴적인 형태이며 반 미학을 통한 새로운 미학으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4) 장르적 혼성

장르적 혼성은 기존의 일원적인 체계나 경계에서 벗어나 장르간의 결합,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미술에서 장르적 혼성은 구조적 표현과 조소적 구성을 지향하며 표현 매체의 새로운 개척으로 시각적으로 미적 풍부함을 주고 기성 장르의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성을 근거로 독창적 형태를 창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한 가지 표현도 구나 기법에서 벗어나 매체와 양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계를 해체하고 독창성과 표현의 자율성



<그림 15> Bruno Basso & Christopher Brooke,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Hidago, M. R. (2007), p.30.)



<그림 16>
Antonio Ciutto, 2006
(출처: Borrelli, L. (2008),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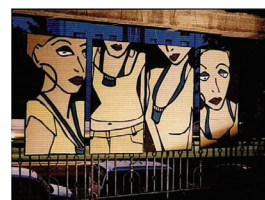
<그림 17>
Hanna Melin, 2008 (출처: Walton, R. and Cogliantry, J. (2008), p.287.)



<그림 18> Eleanor Bowley,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Victionary (2008), p.8.)



<그림 19> Catalina Estrada, 제작년도 표시
없음 (출처: Victionary (2007) p.61.)



<그림 20> Container, 2004
(출처: Kiantan, B. et al. (2005), p.65.)

을 모색하고 있다.

패션 이미지에 다양한 그래픽 요소를 혼합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림 15>에 표현된 그래픽 형상은 표현주체와의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픽 효과를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된 표현이다. <그림 16>과 같은 사진과 드로잉의 결합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혼성적 표현인데 여기에서 사진은 단순한 오브제의 개념이 아니라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와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패션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사진과 그림의 매체의 대비는 매체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 독특한 질감과 형태로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만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만화에서 보여 지는 구성을 화면에 그대로 가져와 칸을 나누어 컷을 만들기도 하고 만화의 대사처럼 글자를 적어 넣기도 하여 실제로 만화책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그림 17). 만화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수많은 분과 중 하나이나 (Chang & Lieberman, 1993/2000)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화에 사용되는 그림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친숙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며 그림과 글이 혼합된 방식은 매체 자체가 주는 유연성으로 전달하려는 패션 메시지를 수용자가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림 18>과 같이 의복제작기법인 스티치나 수를 놓는 기법을 적용시키거나 패션 관련 용품이나 폐품을 활용하는 기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이 조각(paper sculpture) 같은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림 19>와 같이 석판화로 인쇄하고 종이 상자 안에 넣은 입체 조형물로 독특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광고나 디스플레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장르를 초월하여 조각과 같은 입체적 조형물이나 규모가 큰 드로잉을 실외에 세우는 설치미술 같은 작품도 등장하였다(그림 20). 설치미술은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탈장르적 영역이며 확대된 스케일은 실물성을 극대화하여 극적인 느낌을 준다.

장르적 혼성은 순수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도전적 측면이 강하다. 또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복합적 자극을 통해

〈표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 특성과 의미

혼성 표현 기법		표현 특성과 효과	의미 해석
시간적 혼성	반복에 의한 시간 혼성	과거, 현재의 연속성 움직임의 표현 불합리한 원근감	시간적 불확정성 상대성, 상보성 원리
	병치에 의한 시간 혼성	과거, 현재의 동시성 시간의 흐름 표현	
공간적 혼성	투영에 의한 공간 혼성	상호작용 효과 공간 깊이 공간 확장 다의적 공간 시각적 흥미	고전적 원근법의 해체 불확정적 공간 개념 탈 경계성 새로운 의미의 공간 형성
	중첩에 의한 공간 혼성	공간 깊이 시각적 무질서와 혼란 의미의 다의성과 모호성	
	병치에 의한 시간 혼성	상호연계성 역원근법 축각적 이미지 신비감과 초현실적 환상 주체의 해체	
	이중영상	공간 확장 이중 또는 다중 이미지 주체와 배경의 모호성 주목성	
형태적 혼성	이질적 형상 결합	돌연변이 신체 시각적 충격 유희와 재미 추구	불확정적 미 미적 관념의 붕괴 새로운 형상 창조
	비정형적 형태의 결합	비구조적 신체 재질적 변환 신비하고 초현실적 이미지 시각적 즐거움	
장르적 혼성	그래픽 이미지와의 혼성 사진이미지와의 혼성 만화 이미지 차용 입체 조형물과 설치미술	독특한 이미지 현실감 부여 커뮤니케이션 확대 친숙한 이미지	불확정적 의미 탈 경계성 탈 중심적 사고 자율적 표현성

의미 전달을 유보시키고 관찰자의 주관에 의한 의미 해석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어 의미는 더욱 다의적이고 모호해진다. 장르의 혼성은 그 표현 방법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이 나타나는 다원주의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며 중심 지향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창조적 실험정신을 배경으로 자율적 표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혼성적 표현의 의미 해석

1) 불확정성

불확정성이란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결정의 뜻이다(황혜진, 김민자, 2012). 비결정이기 때문에 자유와 선택이 있고 여러 원인이나 동기가 보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사물과 현상을 이항 대립적 양자

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포용관계로 설명함으로써 모순과 갈등을 새로운 차원의 조화로 이끄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김언영, 1999).

시간적 혼성에서 동일형태의 지속적 반복은 우리의 시각의 착지점을 불허하면서 시간적 불확정성을 가져오며 공간적 혼성에서 내부공간이 명료화되지 않은 상태의 비결정적 개방 공간은 공간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공간 확장을 가져오며 확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목적에 따라 변용되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비결정성을 내포한다. 형태적 혼성에 의해 기계나 사물, 자연과 결합한 혼성체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불확정적 신체를 보여주며 형태의 변형, 균형 체계의 파괴 등 기존 관념에서 탈피한 변형에 의한 표현들은 완성과 미완성, 미와 추의 경계가 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인다. 장르적 혼성 또한 다양한 양식의 융합과 타 영역의 적용에 의한 표현으로 다의적인 미학적 가치를 갖는 열린 개념으로의 불확정적 의미를 전달한다.

2) 탈 경계 · 탈 중심성

시간적 혼성은 서로 다른 시간성의 경계를 벗어나 과거와 현재를 한 화면에 표현하며 그림이 순간 포착이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동시성과 연속성을 보여준다. 공간적 혼성은 이곳과 저곳이 하나의 이미지 속에 혼합되어 두 개의 상태가 하나의 관점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차원의 공간이 경계 없이 섞여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는 것이며 시점을 분산시키고 탈 중심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동물이나 사물과의 혼성체는 이분법적 성이나 생물학적 종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연의 범주로서 인간 신체의 한계를 넘어 확장된 신체개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질적 형상은 상징적 질서체계를 벗어난 비정상적 신체로(배명지, 2009) 미와 추의 경계를 해체하며 형태의 변형을 통한 왜곡적 방법으로 기존 미적 관념을 전복하는 것이다. 또한 장르적 혼성은 기존의 일원적인 체계나 경계를 벗어나 영역 간의 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탈 경계

성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혼성적 표현은 기존의 관념과 형태에서 탈피한 변형 작업을 통해 다원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의 양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한다.

3) 새로운 의미의 창조

혼성적 표현은 무질서에 가까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방법이며 한편으로 그것은 창조성의 배경이기도 하다. 완전한 무질서는 새로운 질서로의 가능성을 지니면서 모든 조형의 형성은 이 극과 극의 관련 속에 혼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성은 무언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못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조합하여 이제까지 없는 새롭고 기묘한 것을 만들어내며 두 가지의 섞임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따라서 혼성이라는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는 이질성을 지속시키면서 섞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질을 출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혼성적 결합은 우연에 의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우연성에 의한 표현은 전체로부터 한 요소를 고립시켜 그것의 기능을 제거한 후 그 고립된 단편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는 것으로 우연은 창조의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하며 지각과 내면의 눈을 보다 예리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V. 결론

혼성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특징짓는 문화적 키워드로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대 사회의 과학, 예술, 디자인 분야와 문화 현상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혼성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혼성적 표현은 현대 미술에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전개되었으나 이전의 혼성 표현이 반항과 해체, 파괴를 전제로 했다면 최근에는 창조 개념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코드로 등장했다.

최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며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전통적인 손의 표현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혼성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혼성적 표현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경향과 패션 이미지와 패션 메시지 해석에서의 불확실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혼성적 표현을 시간적 혼성, 공간적 혼성, 형태적 혼성, 장르적 혼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시간적 혼성은 반복에 의한 기법과 병치에 의한 기법이 나타났다. 시간적 혼성에 의한 표현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동시성을 표현함으로써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며 유동적인 이미지와 불명료하고 불확정적 시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둘째, 공간적 혼성은 투영에 의한 방법과 중첩에 의한 방법, 병치에 의한 방법, 이중 영상기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투영은 다른 시점을 동시에 보는 것이며 중첩화면은 시점의 차이가 있는 대상들의 결합으로 공간의 혼성이 나타난다. 병치는 이질적 대상을 하나의 평면에 혼성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초점이 분산되며 이중 영상은 여러 개의 소실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을 통해 내면적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 혼성은 화면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와 관습적 구성을 탈피하고 중심의 부재와 공간의 개방성이 중시되는 표현으로 자유로운 사고에 의해 새로운 구성을 갖는다. 또한 공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다의적 의미를 지니면서 유연성, 불확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형태적 혼성은 이질적 형상의 결합과 비정형적 형태의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형태적 혼성은 형태의 유연적인 발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비현실적인 이미지는 상상적인 결합에서 오는 새로운 세계의 표현이다. 형태

혼성은 외형적으로는 무질서, 부조화, 불연속적인 형태로 복잡성을 표출하며 비계획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일체성과 통일성을 거부한다. 무작위적 구조는 구성 요소간의 의외성으로 불확정적인 미를 제시하며 왜곡된 형상은 기존의 미적 관념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넷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장르적 혼성은 그래픽 형상이나 사진 이미지와의 혼성 결합으로 나타났으며 만화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하고 조형물이나 설치미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르적 혼성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복합적 자극을 통해 의미 전달을 유보시키고 관찰자의 주관에 의한 의미 해석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의적이고 모호한 패션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다원주의적 시대 조류를 반영하며 중심 지향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창조적 실험정신을 배경으로 자율적 표현성을 확립하고 있다.

혼성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것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며 어떤 불변의 진리나 고정된 의미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과거의 인습적인 구조와 조형에 있어서의 가치관을 흔들며 놓아 작가들의 의식에 자유를 심어주고 새로운 공간과 기법의 창출에 관한 의욕을 만들어주고 있다. 더불어 혼성은 결합하고 혼합했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긍정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적 방향성과 보다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혼성적 표현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표현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자유로운 감각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보다 독창적인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강정환 (1996). *현대 건축의 하이브리드적 표현*

- 양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 (1995).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크로스 오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언영 (1999). 현대건축의 표현적 특성으로서 불확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갑 (1991). 현대 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 (2000). 퓨전 디자인의 속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민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 간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1999). 2차원의 중첩 효과를 이용한 공간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01). 현대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이경희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9-16.
- 김태은 (2001). 회화에 있어 동시적 시각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연 (2001). 큐비즘의 투명성과 시간성 표현에 의한 환경 디자인 모형 사례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우철 (2008). 하이브리드적 복합문화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 건축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유영선 (200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현대적 원근법. 복식, 53(7), 57-68.
- 박용인 (199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혼성적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 흥 (2001). 현대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명지 (2009). Artist's body. 서울: 코리아나 미술관.
- 방기정, 김경희 (2010).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문화 연구, 18(1), 64-79.
- 방기정, 김경희 (2012).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제1보). 복식문화 연구, 20(3), 347-362.
- 성유정, 유영선 (200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창의적 표현 방법 연구. 복식, 52(7), 13-25.
- 신준호 (2003). 현대 건축의 혼성적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선 (2004). 포스트모더니즘 회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취경, 김경란 (2005). 다문화 시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 연구, 13(3), 361-379.
- 오은경 (2008). 뉴 미디어 시대의 예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난지 (1993). 80년대 이후 세계 미술의 다원주의. 미술세계, 1(4), 64-66.
- 윤민희 (2008).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 예경.
- 이지현 (2009).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중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4), 644-654.
- 이태하 (2005). 데페이즈망 기법의 혼성적 표현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자, 한윤숙 (2001).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 51(5), 113-134.
- 정수영 (1999). 현대 실내디자인에서의 탈장르적 개념과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식 (2003). 1980년대 포스트모던 회화에 있어 신표현주의 경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창 (1993). 고전 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크로스오버의 세계. 음악동아, 6, 47.
- 최수아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진, 김민자 (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의미해석. 복식, 62(5), 1-15.
- 홍승대 (1997). 실내공간의 이미지 표현 경향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

- 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rrelli, L. (2004).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 Borrelli, L. (2008). *Fashion illustration by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 Hudson Ltd.
- Chang, A. & Lieberman, J. (2000). *A survey of illustration* (최재은 역). 서울: 디자인 하우스. (원저 1993 출판)
- Dawber, M. (2007).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Singapore: Batsford.
- Delicateseen (2005a). *Fashionize : The art of fashion illustration*. Italy: Happybooks.
- Delicateseen (2005b). *Mondofragile 2*. Italy: Happybooks.
- Delicateseen (2007). *Fashionize 2 : Illustration will rule the world*. Italy: Happybooks.
- Hidalgo, M. R. (2007). *Young fashion designers*. Hong Kong: Taschen.
- Kipnis, J. (1995). Hybridization. *A+U*, 296, 63-64.
- Klantan, B., Ehmann, S. & Meyer, B. (2005). *Wonderland*. Berlin: die Gestalten Verlag.
- Latour, B. (2002). Morality and technology: The end of the mean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 247-260.
- Shiner, L. (2007). *예술의 탄생* (김정란 역). 서울: 들녘. (원저 2003 출판)
- Shlain, L. (1995). *미술과 물리의 만남* (김진엽 역). 서울: 국제. (원저 1989 출판)
- Victionary (2007a). *Fashion unfolding*. Hong Kong: Victionary.
- Victionary (2007b). *Fashion wonderland*. Hong Kong: Victionary.
- Victionary (2008). *Illustration play*. Hong Kong: Viction: workshop Ltd.
- Walton, R. & Cogliantry, J. (2008). *Big book of illustration*. New York: Collins design.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3rd ed.). (1988). New York: Simon & Schuster Inc.